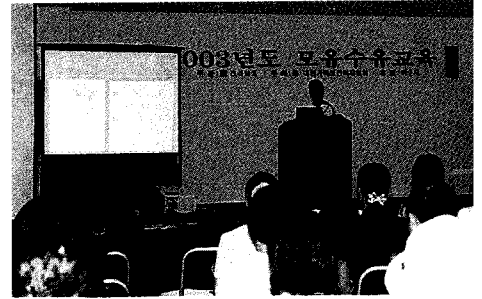


-아기에서 어른까지-

## 가족 건강을 지킨다!



엄마젓 먹이기 증진에 앞장선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예전에는 버스나 기차, 골목길 등에서 엄마 젓을 먹이는 아이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성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80년대 이후 산업화에 의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엄마 젓을 먹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85년 59%, 99년에는

10.8%로 떨어지게 되었다. 최근 여성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엄마젓 먹이기 운동을 하게 되면서 모유를 먹이려는 엄마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비율이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유니세프(Unicef-국제아동기금)은 지난 99년부터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8월 첫째주 세계모유수유주간을 선정해 엄마젓 먹이기를 전세계에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유수유 성공은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와 건강하게 키우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엄마 젓을 먹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85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년부터 일반병의원과 차별화된 모자동실을 운영해 자연스럽게 산모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되어 모유수유를 장려하는데 적극 앞서고 있다. 특히, 도청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5개 시·군에서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모유수유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유수유! 아기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여 여수, 담양, 무안, 함평, 장성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 여성 건강도둑 요실금을 막는다! - Exmi 도입



기침만 해도 소변이 나온다는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현상을 말한다. 중년여성의 40%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요실금은 주로

여성들이 출산을 통해 팽창, 노화, 비만에 의한 경우가 많다. 요실금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성기능 장애까지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실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002년 2월 최신식 요실금 치료기인 체외 자기장 신경/근육 치료기 (Exmi)를 도입하여 24시간 연중 무휴로 매월 200여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전기 대신에 자장(Magnetic Pulse)를 사용하므로 치료시 불편한 느낌을 전혀주지 않고 깊은 부위의 신경조작까지 고루 효과를 가져다 준다. 치료는 1회 20분씩 주 2회 총 6~8주 시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옷도 벗지 않으며 다른 기구를 삽입하지 않고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있기만 하면 치료과정이 끝난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2~3회 치료받으면 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신경계의 활성화 및 골반저근육의 강화로 성기능 장애 개선 및 만성골반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남성질환 중 가장 난치 질환인 전립선통(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돼 왔으나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도 남성의 성기능 개선효과에 탁월하다.

광주/전남지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건강을 위해서 의료기를 도입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